

MUJINE

Heritage

06

JUNE 2013

2013 BASEL WORLD

—식물의 취향

친절한 박용우 씨

—Powerful
Slimming—



PIAGET



꿈꿀 권리, 김현진

새로운 창작자로서 저자성을 갖는 큐레이팅을 해온 그녀는,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불안전 운동을 화두로 길어낸다.

— EDITOR 장남미
PHOTOGRAPHER 박남규 —



— 유명한 미국 히어로 만화들에서 인물과 배경 일부를 지우거나 오려낸 방식으로 제작된 80여 개의 평면 시리즈를 보여준 작가 윤향로.

— 2층 기둥과 바닥 간의 관계를 1층 벽에 대한 잠정적 관계로 연결하는 조각적 설치를 제안한 작가 남화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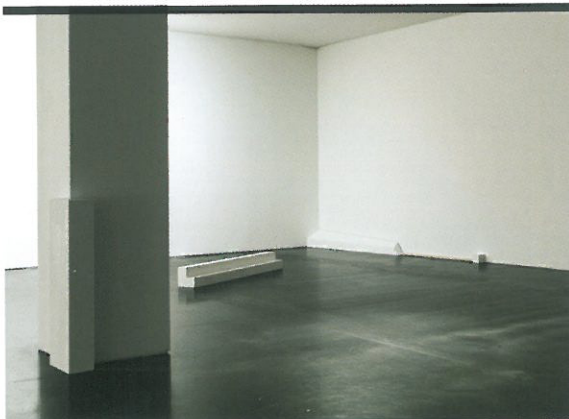


사진 속, 큐레이터 김현진 뒤로 보이는 육중한 벽은, 보이는 그대로 '기울어진 벽'이다. 독자를 위해 좀 더 '드라마틱한' 각도에서 촬영했기에 단번에 보이지만, 실제 전시장에서 정면으로 멀리 볼 땐 알아채기 힘든 '미묘한 기울기'다. 가까이 갈수록 쏟아질 듯 불안한 느낌을 주는 이 벽은, 2006년 네덜란드 반 아베 미술관의 <규정되지 않은 균중들>전에서 처음 시도한 아이디어다. 미술관 프로그램과 조직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지형학적 배경이 다양한 젊은 큐레이터들을 끌어들이고 2005년부터 리서치 큐레이터 제도와 소장품 전시 시리즈 '플러그인'을 만든 네덜란드 반 아베 미술관. 그녀는 첫 큐레이터십을 마친 후 반 아베 미술관의 한쪽 벽에 "5도가량 기울고 3도 정도 왼쪽으로 틀어진" 가벽을 세우고 역사적 소장품들 중 고른 회화 66점을 액자와 보호 유리를 제거하고 빨대를 걸듯 설치한 바 있다. 그 시도와 어떤 연장선을 갖는 <기울어진 각운들>에 이번엔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끌어들이었다. 그 가운데 김현진은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확인했다. "가상의 각을 레이저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 만든 이전 벽이 오차 없는 기울기로 만들어진 데 비해 이번에는 물리적인 벽을 놓고 직접 앞으로 당기고 밀며 기울이는 과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약간의 오차가 생긴 것"이 하나다. 작품 설치과정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공간 스케일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기회"도 있었다. "급격히 팽창한 도시에서 예전처럼 큰 스튜디오를 갖고 작업하는 젊은 작가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물리적으로 작품을 만들 때도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드러나는 문제 중 하나가 '스케일'이었어요.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에 익숙지 않은 작가들은 이를테면 벽의 느낌, 천장고, 바닥 넓이와 같이 모던한 공간의 스케일을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과정에서 생각보다 길었지만, 작가들에게 중요한 계기와 경험이 됐지요." 때론 연장통까지 직접 챙겨야 하고 허물어져가는 작은 집을 전시장 삼을 만큼 척박하게, 때론 드로잉 하나도 직접 잡고 걸 수 없는 권위 있는 미술관과 수백 명의 스태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제 비엔날레에서 화려하게 일해본 경험이 있는 김현진은, 유속이 빠른 동시대 글로벌 미술 현장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짚어온 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현대미술의 복잡한 언어들에 익숙지 않은 관객이든 좀 더 익숙한 관객이든 그 의미를 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왔다. 그녀는, 그러므로 20세기를 지배한 문자 언어의 시대에서 시각 언어로 대체된 동시대와 조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관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첨단 기술로도 박제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아주 강렬하고 특수한 경험들"이라 말한다. 실제 공간 안에서 자기가 움직임을 갖고 여러 가지 작업과 어떤 물리적 접촉을 눈으로 하는 경험. 김현진은 각자의 관람객이 어느 지점에서 서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는, 물리적으로 기록해낼 수 없는 영역까지 감안하는 전시 공간에서 미술로서 '비밀이 없는 비밀'인 인간 삶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일이 곧 큐레이팅이라고 믿는다. 이는 "작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듯 큐레이터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그녀가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미술 현장의 변화와 흐름을 잘 이해하는 젊은 큐레이터로 꼽히는 이유다. M